



## 국민이 선택한 'BEST-5 민생 규제혁신'

- 대국민 투표(10.24~11.7, 2주간)를 통해 선정된 민생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

□ 국무조정실(실장 방기선)은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선정된 20개 사례\*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 동안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\*\* 진행했다.

\* 국민이 직접 뽑는 '민생 규제혁신 BEST-5' 선정 추진 (10.24 보도자료 참고)

\*\* 규제혁신블로그(blog.naver.com/koreareg), 규제혁신페이스북(facebook.com/koreareg)

○ 짧은 기간 총 7,209명의 많은 국민께서 참여\*해 주셨으며, △공공심야 약국 확대 △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등 5개 사례가 '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'으로 최종 선정됐다.

\* ▲성별로는 남성(46.1%), 여성(53.9%) ▲연령별로는 30대(38.1%), 40대(32.2%), 20대(13.3%), 50대(11%), 60대 이상(5%), 10대(0.4%) 순으로 참여

□ 투표 결과 선정된 'BEST-5 민생 규제혁신 사례'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1위 밤에도 휴일에도 아플 때 약품을 살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많아집니다.

**실태**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가족 중에 아픈 환자가 발생해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어 참거나 응급실을 가야했음

**개선**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,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 해소 기대

※ 약사법 개정 '23.4.18(시행 '24.4.19)

#### 국민의 한마디

"어른인 제가 아플 때는 그나마 약국이 열 때까지 참을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는데...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"

"지금도 밤에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증상에 맞는 약을 살 수 없는 게 안타까웠는데, 이제는 약사님이 약을 골라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"

## 2위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자녀 관련 혜택도 선제적으로 제공합니다.

**실태**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길게는 수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, 그 사이 자녀가 소위 제도권 밖의 ‘유령 영아’로 국가의 의료·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

**개선**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개선하는 한편,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·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·복지혜택을 제공하여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

※ 보육사업 안내지침 개정('23.1.1)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지침 개정('23.1.6)  
아동수당사업 안내지침 개정('23.2.6) 국민건강보험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('23.5.1)

**국민의 한마디** “제 주변에도 아는 미혼부가 있어 출생신고의 어려움이나 과정을 알고 있었는데 아이와 아버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”

“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녀 출생신고를 쉽게 하지 못했던 억울함과 불편함이 사라졌으면 합니다. 미혼부도 어엿한 아이의 부모입니다”

## 3위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합리화 합니다.

**실태** 신규계좌는 금융거래 한도가 1일 30만원(창구는 100만원)에 불과하고, 신규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·전업주부·신설법인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

**개선** 신규계좌의 거래한도를 상향하고, 신규계좌 개설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

※ 신규계좌 한도 상향 및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('23.12월 예정)

**국민의 한마디** “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이체한도 해지하러 가는 것도 따로 시간 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었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”

“전업주부라 소득 확인이 되지 않아 이체 한도를 높이기 위해 증명하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... 가계 돈 관리하는 전업주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. 주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”

## 4위 입국 시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.

**실태** 모든 입국자('19년 기준 4,300만명)는 세관신고 물품이 없어도 기내에서 여권과 필기구를 찾아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, 세관심사 대기줄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존재

**개선** 신고대상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, 입국 편의 향상

※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('23.5.1)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('23.5.1)

**국민의 한마디** “해외를 자주 오가는데 신고서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습니다. 신고 할 것도 없는데 작성해야 해서 불편했는데 폐지가 되어 기쁩니다”

“입국장에서 대기 시간도 줄어들고, 종이 사용량도 감소하여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”

## 5위 **짚은 비밀번호 변경,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.**

**실태**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 규정(반기별 1회 이상)이 포털 이용자에도 준용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해야 하고, 바꾼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자주 비밀번호를 재확인·설정해야하는 불편 발생

**개선**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하여 짚은 비밀번호 변경 및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국민 불편 방지

※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정('23.9.22)

**국민의 한마디** “너무 짚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오히려 기존 비밀번호를 까먹는 경우가 생기는데 개선되어서 마음에 드네요”

“나이가 드니 비번도 자꾸 까먹고 사이트마다 번호 규정도 달라서 헛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금이라도 완화된다니 좋은 소식입니다”

- 최종 선정된 5개 사례 외에도, △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‘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’ 구축 △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‘이동주유’ 허용 △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‘임대형 기숙사’ 용도 신설 △섬 지역 에어컨·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‘냉매·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’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.
-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,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‘공공심야약국 확대’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성별로는 △남성은 ‘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’, ‘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’를 △여성은 ‘미혼부 양육환경 개선’, ‘신규 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’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.
- 연령대별로는 △10~20대는 ‘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’ △30~40대는 ‘신규 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’ △50대는 ‘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’ △60대 이상은 ‘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’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.
- 앞으로도 정부는 ‘우문현답(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)’라는 원칙을 가지고,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는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.

<총괄>	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이덕희	(044-200-2430)
		담당자	사무관	박민정	(044-200-2366)
			사무관	고금희	(044-200-2914)
			청년인턴	김정현	(044-200-3974)



# 국민이 선택한 민생 규제혁신 BEST5

국민의 소리를 담아 국민께 보고합니다. 2주간 7,209명 참여 😊

1

공공심야약국 지정 근거 마련으로 전국에 설치 확대, 새벽 1시까지~ 주말도~ 약품 구매 가능

약사법 개정('23.4.18)



골\*식  
어른인 제가 아프면 참을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는데...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🙏

2

미혼부 우영우 아빠도 자녀 출생신고를 쉽게~, 출생신고 전에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·의료 지원 강화

보육사업 안내지침 개정('23.1.1) 등



생\*\*삼  
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녀 출생신고를 쉽게 하지 못했던 억울함과 불편함이 사라졌으면 합니다. 미혼부도 어엿한 아이의 부모입니다. 🙏

3

30~100만 원인 신규 계좌 거래한도를 상향, 전업주부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

신규계좌 한도상향 및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('23.12월 예정)



자\*  
전업주부라고 소득 확인이 되지 않아 이체한도 상향을 높이기 위해 증명하는 게 어쩌나 힘들던지... 가계 관리하는 전업주부들에게 큰 힘이 돼요. 😊

4

국내공항 입국자 '휴대품 신고서' 작성 폐지 (입국자 99%는 신고할 휴대품 없음)

관세법 시행규칙 개정('23.5.1) 등



편\*이  
입국장에서 대기 시간도 줄어들고, 종이 사용량도 감소하여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😊👍

5

잡은 비밀번호 변경, 이제 그만! 인터넷 포털 등에서 변경 의무 완화

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('23.9.2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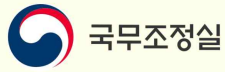
가\*\*개  
비밀번호 변경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다 보니 오히려 자주 잊어버려서 다시 찾는 것이 번거로웠는데 개선하니 더 편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. 😊



규제혁신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입니다. 정부의 규제혁신을 응원합니다. ❤️❤️

민생 규제혁신으로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합니다. 🙏🙏





# 내 삶에 혁신이. **민생규제 혁신**

## 여행 가면

**1**

**국내공항 입국자 '휴대품 신고서' 작성 폐지**  
(입국자 99%는 신고할 휴대품 없음)  
▶ 23년 5월 시행

**2**

**부산항 입국장에서 면세품 수령**  
▶ 23년 4월 시행

**3**

**여객선으로 냉매·용접용 가스 운송 허용, 242개 섬 지역에서도 에어컨·냉장고의 설치·수리 가능**  
▶ 23년 5월 시행

**4**

**청소년수련지구 내 목욕장업(찜질방 등) 입주 허용**  
▶ 24년 상반기 시행 예정

## 일상에서

**5**

**지방대에서 학과의 신설·증설이 가능, 지방대의 정원 조정 자율성이 확대**  
▶ 23년 2월 시행

**6**

**로봇 이용 무인카페가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분류, 장소 제한없이 어디서나 영업 가능**  
▶ 23년 1월 시행

**7**

**30~100만원인 신규계좌 이체한도가 상향되어 금융취약계층 지원(전업주부 등)**  
▶ 23년 말 기준 마련

**8**

**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 폐지**  
▶ 24년 1월 시행 예정

**9**

**편의점 외벽에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를 부착, 편의점 종사자의 안전 UP~!**  
▶ 23년 7월 시행

**10**

**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, 밤에도 휴일에도 약품구매 가능**  
▶ 24년 4월 시행 예정



# 내 삶에 혁신이. 민생규제 혁신

## 집에서



11

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거실 등을 공유하는 공유주거 형태로, 학생·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 운영할 수 있는 '임대형 기숙사' 신설  
▶ 23년 2월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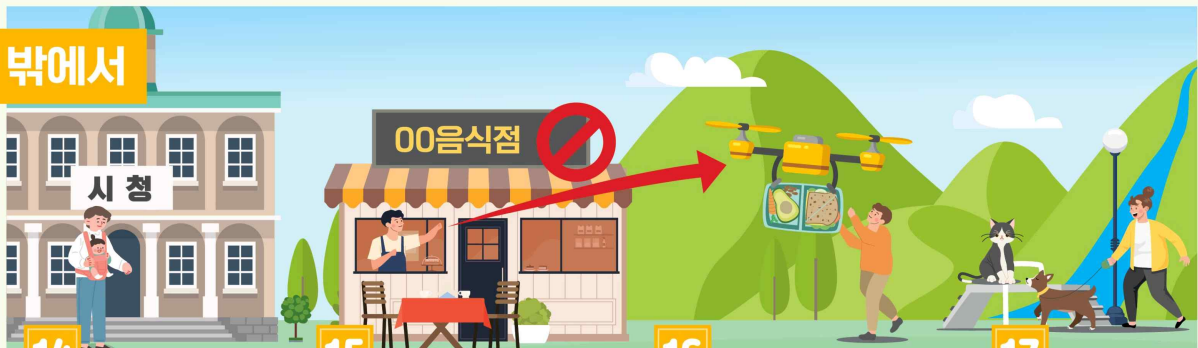
12

해외 상품, 직구도 반품도 쉽게!  
'모바일 관세 납부·환급' 시스템 구축 ▶ 23년 3월 시행 등

13

짙은 비밀번호 변경, 이제는 그만!  
인터넷 포털 등에서 변경 의무 완화  
▶ 23년 9월 시행

## 밖에서



14

미혼부 우영우 아빠도 자녀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추진 중  
▶ 23년 10월 가족법 개정 특위 출범

15

식품적객업 간판에 세부업종 표시 폐지 예정으로 사업자들의 자율성 확대  
▶ 24년 3월 시행 예정

16

산간지역에 음식 배달 등 드론배송 가능 40분 거리가 15분이면 도착!  
▶ 22년 7월 시행

17

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, 휴식시설 허용  
▶ 23년 7월 시행



18

검·소형, 중형 승합·화물차의 검사주기 완화로(최초검사 1년 → 2년 등) 자영업자 부담경감  
▶ 23년 11월 시행 예정

19

비슷했던 택배차량, 차량 앞면 광고 허용으로 쉽게 식별  
▶ 24년 상반기 시행 예정

20

재난현장의 소방차량에 이동주유 허용  
▶ 23년 12월 시행 예정